

지역 매 아 리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재난대비 비상대처훈련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조남출)는 18일 재난대비 비상대처훈련이 동진면 고마 저수지와 계화 배수장에서 부안지사 전 직원을 비롯하여 부안군,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지역농업인 등 8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훈련은 지진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한 저수지 붕괴, 배수장 가동장애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훈련으로 했다.

조남출 지사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시를 대비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해 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영원면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정읍지역 15개 읍·면 중에서는 처음으로 영원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제1기)가 구성됐다.

영원면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은 시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다.

시는 등지역에서만 운영해왔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 지난 3월 영원면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관련해 면은 지난 16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에 따른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초대 임원단(위원장 전병수, 부위원장 정희은 간사 김혜종)을 구성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구성원 간 교류활성화와 지역화합을 위한 지역자치 활동 통합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계획이다.

전병수 초대 위원장은 “앞으로 면민 화합과 발전하는 영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류태영 영원면장은 “주민과 주민자치위원회, 관내 기관단체와 직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면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영원면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 소득창출 도모

고창군, ‘만들권 역 거점개발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고창군이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 최명용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장, 만들미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들권역 거점개발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만들권역 거점개발사업’은 고창군이 만들리 주민들과 함께 준비해 2017년 4월, 해양수산부의 2018년 일반농어촌개발사업(이촌분야)’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올해부터 4년간 국비 64억원, 지방비 27억500만원 등 총 94억600만원을 투입하여, 특화자원과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는 어촌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은 마을 생태 숲 조성, 만들문화방, 복합생태공간 조성 등 기초생활 기반과 부분, 지역특산물판매 및 로컬 투자체험장 조성 등 지역 소득증대 부분, 소죽도 전망대, 계계산 조화류 식재 등 지역 경관개선 부분, 지역역량강화 부분 등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어항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최근 5

년간 어촌종합개발사업 관련 수행실적이 16건, 200억원에 이르는 우수한 수행능력이 인정돼 참여하게 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정정 갯벌에서 생산되는 자주식 김, 바지락, 천일염 등 풍부한 특화자원과 선운산 도립공원,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고창 갯벌식물원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물뚝이 민개가 솟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만들 미을의 지명처럼,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소득창출의 기회로 삼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여행지 안내

‘고창 관광택시’ 인기

택시 운전사들의 구수한 입담과 함께 ‘한국인의 본향 고창’의 정감을 들판 낀 수 있는 고창관광택시가 봄 여행에 나선 관광객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 관광택시’는 베�테랑 택시 운전사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창의 주요 관광지와 맛집 체험센터, 숙박업소를 관광객의 취향과 목적에 맞게 연계·안내하며 일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고창 관광택시(063-563-9363)는 1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요금은 3시간에 5만원(6시간 8만원, 추가요금 시간당 2만원)이다.

특히, 봄을 맞아 25만여 평의 광활한 대지 위에 펼쳐진 소록 물결 속 즐거운 체험이 기득한 제15회 고창청보리밭축제(4.21~5.13)와

선운산 붉은 등백꽃의 향연, 고창



제15회 고창청보리밭축제 4.21~5.13까지 펼쳐진다

읍성에 만개한 철쭉을 비롯해 풍천장어 등 오감만족 체험관광을 통해 특별한 고창의 봄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은 봄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수박·복분자 수확체험, 만들·하전 어촌체험마을에서의 바지락 갯벌 체험,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가을에는 선운사·문수사 꽃무릇과

단풍을 비롯해 국화축제와 공연 면회농장의 메밀밭과 겨울 설경을 비롯해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즐기는 농촌형 테마공원 상하농원, 석정온천, 미당 시문학관,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 물유적과 운곡란사르습지 등 계절별·테마별 먹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한 힐링 테마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청보리밭 축제 주말 기동반 편성… 음식물쓰레기 신속 수거

고창군이 오는 21일부터 5월 13일 까지 공을면 학원관광농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15회 고창청보리밭 축제’를 대비해 청결한 주변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 주말 기동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축제를 맞아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므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8시 이전에 배출하고 악취발생 방지하기 위한 청결한 용기관리로 주민과 관광객에게 명품 고창의 청결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해경,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불철 성수기를 맞아 관내 다중이용선박 사업자 및 선원의 자율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2주간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안전관리 강화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부안 해경은 최근 허신도 여객선 사고 등으로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성수기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선제 사고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중점 안전관리 사항으로 1)승객 신분확인 의무 2)차량 적재(고박) 기준 준수 3)승객 안전준수사항 안내 4)구명장비·시설 즉시사용 권리 5)선박

검사 후 상태 유지 6)선내 주류판입 금지 등 안전운항관련 사업자 및 승객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기상의뢰시 철저한 출항통제, 항로상 안전위해요소 사전제거 및 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을 위한 승객명부의 확보가 필요하다.

부안 해경 임계육 해양안전과장은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 해수면과 대기의 온도차에 의해 해상에 짙은 인개가 자주 발생하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무엇보다도 해양증사자, 승객 스스로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현장 홍보·지도와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마을별 간이상수도 관리자 운영 교육

정읍시는 17일 마을별 간이 상수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물 운영 교육을 가졌다.

교육에는 시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 3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27개소 총 30개소의 운영 관리자와 해당 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참석했다.

시는 “광역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상수도로 공급받고 있는 마을에 맑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정읍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소독약 투입 등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간이 상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방법과 효율적인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맑은 물 공급과 관련, 시설 운영의 어려움과 전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여 진정한 물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감각통합치료실

아동 감각적 발달·성인 균력·밸런스 치료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 이달부터 감각통합치료실을 운영한다.

장애인복지관은 “그네(룰, 플랫 그물과 흔들 시대기), 감각 자극 훌륭등을 갖춘 감각통합치료실을 마련해 아동의 감각적 발달, 성인의 균력과 밸런스(balance)를 높일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각통합치료(Sensory Integration Therapy)는 전반적으로 감각 발달이 느린 아동과 균력 강화와 밸런스 훈련을 필요로 하는 후천성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방법이다.

전정 자국과 고유 수용성 감각·촉각의 감각 자극이 주된 치료 활동으로 진행된다.

장애인복지관은 “감각통합 치료실 운영을 통해 아동과 성인의 효과적인 재활과 독립적인 일상 생활을 돋쳤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복지관은 “감각통합치료이외에도 언어와 심리, 인지, 운동치료사들과 함께 장애인 재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첨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칠맛물을 느껴보세요.

오늘날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너너히 넣고 점심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깊끔함을 한껏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벼산반도 경정해역의 해물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달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은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수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축제를 맞아 음식물쓰레기가 많아 발생하므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8시 이전에 배출하고 악취발생 방지하기 위한 청결한 용기관리로 주민과 관광객에게 명품 고창의 청결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강산뽕주
Premium Ohdi Wine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칠봉 2ea/12%, 복분자 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호 | 375ml 2ea/13%

GIFT SET 8호 | 375ml 2ea/13%

GIFT SET 9호 | 375ml 2ea/13%

GIFT SET 10호 | 375ml 2ea/13%

GIFT SET 11호 | 375ml 2ea/13%

GIFT SET 12호 | 375ml 2ea/13%

GIFT SET 13호 | 375ml 2ea/13%

GIFT SET 14호 | 375ml 2ea/13%

GIFT SET 15호 | 375ml 2ea/13%

GIFT SET 16호 | 375ml 2ea/13%

GIFT SET 17호 | 375ml 2ea/13%

GIFT SET 18호 | 375ml 2ea/13%

GIFT SET 19호 | 375ml 2ea/13%